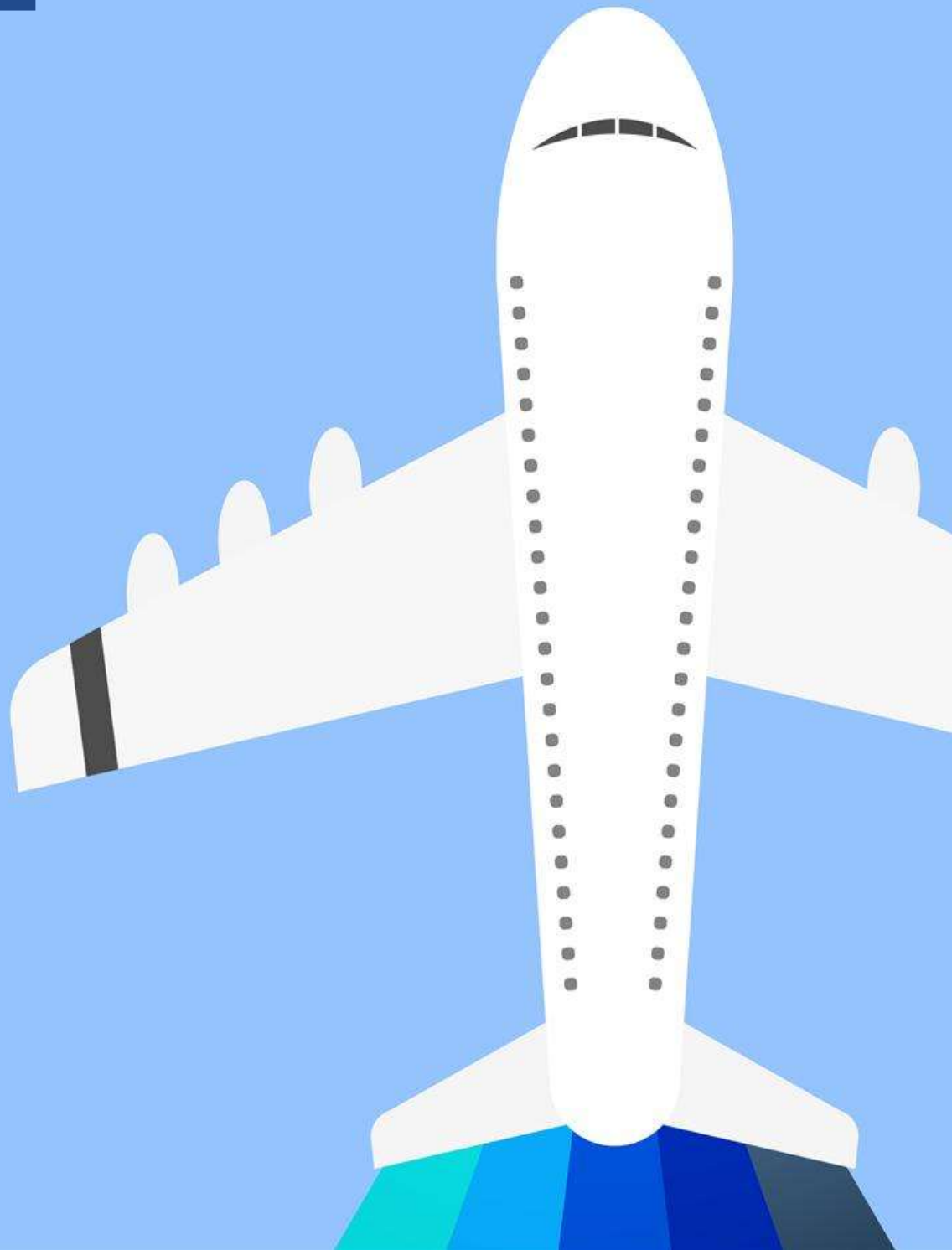


2021 해외출장 가이드

독일

뮌헨

Munich



목 차

I. 독일/바이에른 개황	1
II. 독일 경제·교역 동향	9
III. 지역 현안	15
IV. 한·독 경제교류 현황	20
V. 투자 동향	23
VI. 바이에른 주요 전시회 현황	26
VII. 뮌헨 시내 주요 관광지	28
VIII. 한국/독일 식당정보	34
IX. 바이에른 주요 축제	36
X. 바이에른 지방의 전통 음식	37
XI.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39
XII. 독일&바이에른 기업정보원	42
XIII. 주요연락처 정보	44
XIV. 뮌헨무역관 오시는 길	45

I. 독일/바이에른 개황

1. 독일개황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 (Bundesrepublik Deutschland) 영어명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위 치	서유럽
면 적	357,581 km ²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기 후	온대성, 연간 섭씨 3.3~19.9도 ('20년 연평균 10.4도)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312만 명 (독일인 87.2%, 외국인 12.8%) (2021년 3.31 기준, 독일통계청)
주요 도시	베를린(366만 명, 수도), 함부르크(185만 명), 뮌헨(156만 명), 쾰른(109만 명), 프랑크푸르트(76만 명)
언 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27.2%), 개신교(24.9%), 이슬람교(6.7%), 무종교(38.8%), 기타(2.4%)
건국일	1871년 1월 18일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해 독일 제 2제국 탄생)
정부형태	내각 책임제
연방대통령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SPD)] -취임일 : 2017.3.19. 임기 : 5년
수 상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CDU)] -취임일 : 2005.11.22. (재선 : 2009.10.28., 3선 : 2013.9.22., 4선 : 2017.9.24.) *과반수 득표 실패, 2018.2.7.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 대연정 협상 타결 * 2021년 9월 27일 총선 결과, 사민당(SPD)이 총 25.7% 득표로 제1 당으로 등극, 차후 연정 구성에 관심 주목

2. 독일 경제지표

명목 GDP	3조 3,362억 유로('20년), 8,472억 유로('21년 1분기), 8,593억 유로('21년 2분기)
1인당 명목 GDP	40,494 유로('20년)
실질 경제 성장률	-4.9%('20년), 3.5%('21년 전망), 3.6%('22년 전망)
실업률	5.9%('20년 평균), 5.6%('21년 8월 당월)
물가 상승률	0.5%('20년 평균), 3.9%('21년 8월 당월)
화폐 단위	유로(Euro)
환율	1 유로 ≙ 1,372.74원('21년 9.30일 기준)
총 설비 투자	7,384억 유로('20년 -3.1%), 1,746억 유로('21년 1분기 -1.4%), 1,965억 유로('21년 2분기, +7.5%)
국내 총 소비 (민간,정부)	2조 4,601억 유로('20년 -3.5%), 5,951억 유로('21년 1분기 -5.7%), 6,172억 유로('21년 2분기, +7.5%)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1조 4,601억 유로(-9.4%) - 수입 : 1조 2,661억 유로(-8.5%) ○ 2021년 7월 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 7,881억 유로(+12.4%) - 수입 : 6,735억 유로(+16.6%)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21년 5월 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기타항공기,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기타기계류, 원심분리기 ○ 수입 ('21년 5월 누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자동차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의약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화기 및 기타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에 위한 기기,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전자집적회로,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헥테로고리 화합물

* 주: 독일 연방통계청의 품목별 세부 통계는 순위가 부재한 관계로 Global Trade Atlas 통계 활용, 단, 독일 정부의 통계와 세부 통계 간 최신 발표 시점에 차이가 있음.

3. 바이에른주 개황

위 치	남부 독일
면 적	70,552 km ² (독일 전체 면적의 20%)
주 도	뮌헨(Muenchen)
인 구	1,314만 명 (2020년 12월 31일 기준, 바이에른 통계청)
주요 도시	뮌헨(148만, 주도), 뉘른베르크(53만), 아우구스부르크(30만), 뷔르츠부르크(14만)
GDP ('20)	€6,102억 (독일 전체 GDP의 18.29%)
실업률	3.6% (2021년 5월 기준, 독일 전체 5.9%)
경제성장률	▽5.5% (2020년)
수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액 : €1,682억 (독일 전체의 13.96%) - 미국(€171억), 중국(€156억), 프랑스(€115억), 영국(€102억), 한국(€34억), 일본(€27억) 등 ○ 주요 수출품 : 자동차, 전기제품, 기계, 화학·바이오, 식품 등
수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액 : €1,801억 (독일 전체의 17.51%) - 중국(€184억), 오스트리아(€142억), 체코(€140억), 미국(€123억) 등 ○ 주요 수입품 : 자동차, 전기제품, 화학제품, 원자재 등
주지사	닥터 마르쿠스 쇠더 [Dr. Markus Soeder (CSU) / 취임일 : 2018.03.16]
공공기관/기업 진출현황	<p>공공기관 : KOTRA</p> <p>지상사 : 삼성SDI(배터리), 삼성반도체(반도체), 한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자동차부품, 서울반도체(LED), Humax(셋톱박스), Alpinion(의료기기), DMT(플라스틱) 등.</p>
대표 기업	Allianz(보험), Siemens(엔지니어링), BMW(자동차), AUDI(자동차), EADS(항공), MAN(자동차,기계), Linde(에너지), Infineon(반도체), Wacker Chemie(화학), Schaeffler(자동차부품), ADIDAS(스포츠), PUMA(스포츠), MTU(기계, 항공부품)

4. 바이에른 주 특징

□ 연구개발 중심지

- Max Planck Institute 12개소, Fraunhofer Institut 7개소, 환경 및 건강 연구소 (GSF), 독일우주항공연구소(DLR) 등 많은 연구소 소재
- 연구개발 종사인력이 68,000여명에 달하는 유럽 내 최고의 R&D지역
- 독일 연방특허청과 EU 특허청 소재
- 독일 신규 특허의 25%가 바이에른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가 출원

※ 바이에른주 소재 막스플랑크 연구소

- Garching (4개) : 천체물리, 플라즈마 물리, 양자광학
- Martinsried (2개) : 생화학, 신경생물학
- Erlangen (1개) : 광학
- Munich (5개) : 물리, 심리, 세법 및 공공재정, 사회법과 사회 정책, 지적재산권 및 경쟁법

□ High-Tech 산업 발달

-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 항공우주, 의료기기 및 환경산업 등이 고루 발달
- 주 정부 차원에서 High-Tech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 특히 IT보안을 디지털산업의 핵심으로 보고 연구 지원
- 1835년 독일 최초로 뉘른베르크(Nuernberg)-퓌르트(Fuerth) 구간 철도 개통
- 아우구스부르크에서는 디젤(Diesel)이 1892년 세계 최초로 자체점화 엔진 개발

□ 관광, 휴양의 중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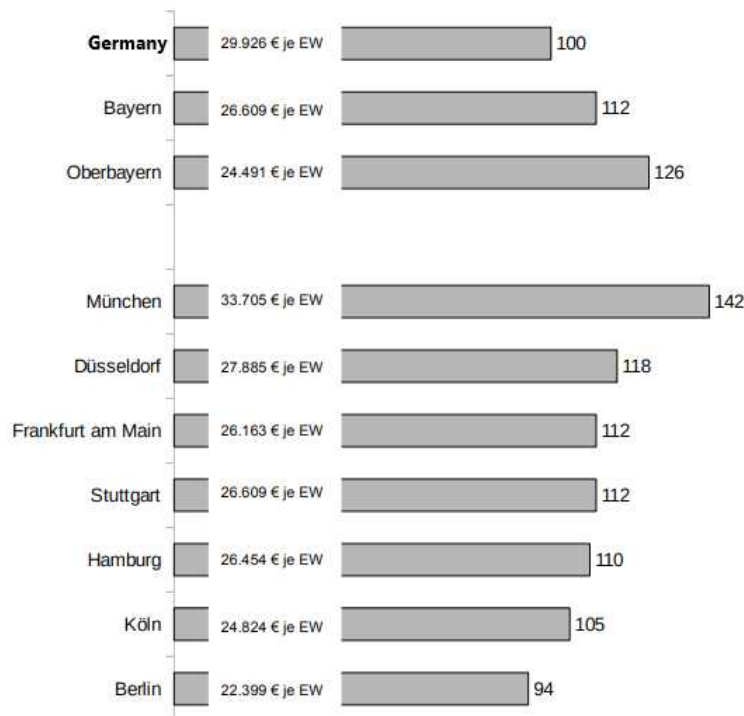
-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보유
- 미국 디즈니랜드의 모델이 된 것으로 유명한 동화같은 성 노이슈반슈타인과 로텐부르크를 비롯한 중세 도시를 잇는 로맨틱 가도, 그리고 남부 알프스 산악 지대의 아름다운 호수들은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음
- 크나이프(Kneipe) 자연 요법으로 유명한 Bad Woerishofen, 소금광산으로 유명한 Bad Reichenhall 등 많은 휴양지 소재

5. 뮌헨 특징

□ 뮌헨의 경제수준

- 뮌헨은 독일 대도시(50만 인구 이상) 중에 실업률이 가장 낮은 도시로 선정됨
 - 고용시장이 가장 큰 독일 도시 2위로 선정
- 뮌헨은 독일 대도시 중에 구매력이 가장 높은 도시임.
 - 구매력은 한 사람이 세후 수입과 복지혜택으로 얻는 금전적 수익의 총합을 의미
 - 구매력은 보통 생활비, 보험, 집세나 저축에 사용됨

[절대적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



출처 : Axiom Deutschland GmbH

(지표: Germany=100)

□ 뮌헨에 소재한 기업들

- 바이에른 주에 DAX지수¹⁾ 대상 기업 9개 중 7개 기업이 뮌헨에 위치하고 있음
 - 이렇게 많은 대상 기업이 분포한 대도시는 뮌헨이 유일함

- 뮌헨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 Allianz Deutschland AG(보험, 금융), BMW AG(완성차), Infineon Technologies AG(반도체), Linde AG (가스), Munich Re AG(재보험), Siemens AG(엔지니어링), Pro Sieben Sat.1 Media SE(미디어)
- 뮌헨에는 DAX에서 파생된 MDAX(Mid-Cap-DAX), TecDAX 등의 기업들도 많이 위치함
 - DAX 해당 기업들이 뮌헨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유로, 뮌헨은 이미 수년간 Börsenliga²⁾(랭킹)에서 독일 도시들 중에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뮌헨에 있는 MDAX, TecDAX 해당 업체]

MDAX(Mid-Cap-DAX)	TecDAX
- CTS Eventim München AG&Co.KGaA	- ADVA Optical Networking SE
- Deutsche Pfandbriefbank AG	- Cancom SE, MorphoSys AG
- MTU Aero Engines AG	- Nemetschek AG
- Osram GmbH	- Telefónica Germany GmbH&Co. OHG
- Wacker Chemie AG	- Siltronic AG
- Rational AG	- Wirecard AG

□ 뮌헨의 경제구조

- 보험 & 금융
 - 뮌헨은 독일 최대의 보험도시이며 세계 최대의 재보험 시장을 보유
 - 대표 보험사 : MunichRe, Allianz AG.
 - 2012년도에 뮌헨에 22,304개의 사회보험 기업이 있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는 18,238개의 기업만 남았으며 지난 5년 동안 18.2% 감소
 - 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에 기술 분야가 더해진 사업은 뮌헨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Comdirekt-Bank는 뮌헨이 FinTech³⁾분야에서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음
 - 뮌헨이 FinTech와 InsurTech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 DAX 지수(Deutscher Aktien Index, German stock index)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성된 종합 주가 지수임. (출처:위키백과)

2) 여기서 비교 가능: www.simon-kucher.com/de/about/media-center/boersenliga-deutscher-staedte-2016

3) FinTech은 독일어로 Finanztechnology(financial services+technology)을 줄여서 만든 말이다. 보험 분야 (insurance+technology)는 InsurTech이라고 부른다.

뮌헨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과학 기술 분야의 회사들, 정보통신 회사들 그리고 수많은 노하우들 덕분임

○ 소매업

- 뮌헨이 독일에서 소매업이 발달한 도시로 자리 잡은 지는 오래되었음
-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뮌헨 주민들의 높은 구매력, 좋은 경제적 조건들, 낮은 실업률, 높은 고용률 그리고 관광객의 큰 비중임
- 특히 관광산업이 소매업과 직접적인 상호 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뮌헨의 하이테크 분야와 이노베이션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

- 뮌헨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혁신의 잠재력도 크기 때문에 하이테크 분야는 성장하고 있으며 인정받고 있음
- 하이테크 분야의 포괄적인 특성은 다양한 기술 분야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새로운 경제 분야를 만들어 내며, 또한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고용 또한 평균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뮌헨은 독일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테크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했으며 하이테크 분야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기술, 의학기술, 생명공학 기술, 운송/항공기술과 우주기술 등의 사업체들이 뮌헨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뮌헨에 중심 기반을 두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뮌헨이 EU국가 전체에서 정보통신 분야 1등을 차지함
- 수많은 정보통신 회사들이 뮌헨에 지사를 두려고 하는 점은 뮌헨의 정보통신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되었음을 증명해줌. 지사를 뮌헨에 둔 기업들은 IBM, Microsoft, Google Deutschland, Alibaba-Group이 있으며, 그 외에 Huawei의 유럽 연구본부 또한 뮌헨에 있음
- 뮌헨에는 여러 연합체들이 디지털화를 돕고, 해당 분야의 기업과 연결을 시켜 주는 역할을 함. 주(州)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연합의 예로는 2015년도에 바이에른 주에 가입되어있는 "Zentrum Digitalisierung.Bayern"(ZD.B)이 있으며 다루고 있는 분야는 네트워크 유동성, 디지털 제품, IT보안, 디지털 의학기술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화임
- 그 외 민간연합 : Isarnetz e.V., MUK IT-Unternehmensnetzwerk,

Konferenz 48 forward, Star-Up-Veranstaltung Bits&Pretzels,
DLD-Konferenz, Digitale Stadt Muenchen e.V.

○ 의료기술

- 독일의 의료기기의 시장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가장 발달했으며 생산국으로도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뮌헨 내에서도 의료기술 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5년도에 41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19,150명의 종업원이 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뮌헨은, 이 분야에서 독일의 핵심적인 도시임
- 뮌헨과 뉘른베르크로 이루어진 의료기술 클러스터는 바이에른을 대표하는 가장 큰 클러스터임

[숫자들로 본 뮌헨의 의료기술 분야]

	생산업체	공급업체
기업 수 (개)	200	150
총 매출 (€)	25억	16억
종업원 수 (명)	14.000	7.000
그 중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의 수 (명)	13.100	6.050
투자액 (€)	1억 2.500만	250만

자료 : Medizintechnik in der Region Muenchen 2015

- 뮌헨에 있는 의료기술 관련 기업들은 국제시장에도 맞춰져있으며 기업들의 1/3은 매출의 75% 이상을 해외시장에서 냄. 가장 공략하는 시장은 EU 역내 국가들의 시장과 미국시장임
- 의료기술 분야는 뮌헨에서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역할을 하고 있음. 분야의 잠재력을 보았을 때 뮌헨의 하이테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임은 분명한데, 그에 비해 그 중요성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임

○ 생명 공학과 제약 산업

- 2016년도 말 통계에 의하면 뮌헨에 188개의 생명공학 회사들과 12.000명의 종업원이 있음
- 대표 회사 : Roche Diagnostics GmbH, Morphosys, Amgen, Aenova 등
- 생명공학과 제약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연구에 힘을 실어야함. LMU와 TU München, Max-Planck 연구소, Helmholtz센터 그리고 효율성을 인정받은 클러스터 연합 BioM 등 뮌헨은 매우 좋은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음

II. 독일 경제·교역 동향

1. 독일 경제현황 및 전망

□ 독일은 전년도 코로나發 경기위축 후 '21년 GDP 3.5% 성장 전망*으로 경제성장 낙관, '22년 3.6%로 회복 전망

- (경기) '20년 코로나19 위기로 생산, 소비, 설비투자, 고용, 수출입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 악화, 3분기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상반기 부진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 '20년 독일 연간 경제성장은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09년 -5.7%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인 -4.9% 기록,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대외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독일 수출은 '09년 금융위기(-18.4%) 이후 최대의 감소세이자 '13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 기록*
 - * '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수출입이 각각 -9.4%, -8.5%로 큰 폭으로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 및 단축근무, 조업 중단, 각 상점의 영업 운영 중단 조치 시행 등으로 민간 소비도 위축(-6.1%) (자료원: 독일정부, 독일연방통계청)
 - (전망) '21년 4.27일 독일 정부는 '21년 경제전망을 기존의 +3.0%('21년 1.27일) → +3.5%로 상향 조정 발표, 견조한 산업경기와 글로벌 백신 접종 보급 진전 등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낙관론
 - 내수 회복과 개인소비 지출 증가 및 세계 경제 성장 전망(+5.7%)에 따라 산업경기 회복과 해외수주 증가로 수출이 9.2% 성장하며 올 한해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독일정부)
 - * '21년 독일 정부는 민간소비 +0.8%, 설비 투자 +7.5%, 수출 +9.2%, 수입 +7.8% 등 회복세 전망
 - '21년 2분기 독일 GDP는 전년동기 대비 +9.8%, 전분기 대비 +1.6%로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 '21년 상반기 수출입이 각각 +16.7%, +15.4% 증가하며 경기 상승요인으로 작용
 - * '21년 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3.3%, 전분기 대비 -2.0%
 - 단, 최근 원자재 및 전자부품 공급 및 운송 차질로 비용 상승 및 제조업 둔화세 확산
 - * (기계) '20년 코로나19發 위기에 따른 수주급감으로 지난 금융위기 이래 최대인 -12.1%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감소세 기록, '21년 6월 독일기계 및기계설비제조협회(VDMA), '21년 전 세계적인 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수주 증가에 힘입어 '21년 실질 성장률 전망을 기존 +7% → +10%로 재차 상향 조정, 전반적인 경기상승세로 공급 병목현상 등 생산에 다양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나, '22년에는 다시 위기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 (자동차)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20년 높은 감소세(292만대, -19.1%) 이후 '21년 하반기 백신 보급 진전에 따른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약 315만 대 판매로 전년 대비 8% 증가 전망, 그러나 예년 수준 회복은 역부족('19년 360만 대 판매), 또한 '21년 7월 지속되는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로 '21년

독일 내 생산 전망 재차 하향 조정(기준 전년 대비 420만 대(+20%) → 400만 대(+13%)(5월) → 360만 대(+3.4%)(7월)

〈독일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GDP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성장률(%)	2.1	3.0	1.1	1.1	-4.9	3.5	3.6

주 : '21년과 '22년은 전망치

자료 : 독일연방통계청

- **(내수)** '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및 단축근무, 조업중단, 각 상점의 영업 운영 중단 조치 시행 등으로 민간 소비 위축(-6.1%) 및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감소(-12.1%)
 - * 독일 정부는 코로나 상황 호전으로 코로나19 대확산 방지를 위해 '21년 4.24일~6.30일 시행한 강력한 코로나19 긴급 제동 조치 종료, 8.23일부로 실내 음식점, 의료시설 방문, 실내 문화행사 및 스포츠, 숙박 등의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을 3G(백신접종자(Geimpfte), 완치자(Genesene), 음성확인자(Getestete))로 제한, 9.16일부터 각 연방주는 이를 부분 적용(예 : 2G(백신접종자, 완치자)) 또는 전체 적용 가능
 - * 또한 9.16일부터 방역규제 기준지표를 현 1주일 간 인구 10만 명 당 신규 확진자 수(Inzidenz) → 코로나19 발생 입원자수(8, 15 등) 및 중환자실 입원자수(200, 400 이상)로 변경, 연방정부는 최소 4 주마다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 예정
 - 백신 보급 확대 속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호전되면서 수요 회복에 따른 성장세가 진행되고 있으나, 변이 확산에 대한 방역 및 대응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21년 코로나19 변종 확산 우려 속에서도 백신 접종 확대와 더불어 영업 정상화에 따른 내수 회복세 (내수수요 전망 +2.5%) 기대

- **(고용)**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고용시장에 여전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독일연방노동청의 단축근무 지원 등에 힘입어 독일 '20년 실업률은 5.9% 기록
 - '21년 실업률은 1월 및 2월 6.3%(연내 최대치) → 8월 5.6%로 감소(총 258만 명), 전월 대비 동일, 전년 동기 대비 0.8%p 감소하며 회복세 기록
 - '21년 실업자 수는 전년 270만 명 대비 소폭 감소한 260만 명 전망, '22년에는 실업자 수는 약 240만 명으로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전망
 - * '21년 8월 독일 연방노동청(BA) 쉐엘레(Detlef Scheele) 대표, 8월 고용시장은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성장이 탄력을 받으며, 지속적인 회복세를 시현

□ 독일 정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시행

- (경기부양) '20년 3월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 (총 7,560억 유로)*에 이어 6.4일 2차 경기부양책(총 약 1,312억 유로) 발표
 - * 독일재건은행(KfW)의 보증규모 4,490억 유로 포함 시 총 1.2조 유로 규모
 - 이는 대대적으로 내수시장 강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 투자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경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21년까지 지속 집행 예정
 - * (수소경제) 독일 정부는 수소를 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위한 핵심 역량 집중 분야로 육성 계획 추진 중. 수소 생산연구개발수소인프라국제협업 등에 총 90억 유로를 투입해 2040년까지 10GW 에너지 생산 목표
 - * (디지털화)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5G 인프라(€50억), 5G-6G 기술(€20억) 및 공공기관 디지털화(€30억) 등을 추진하고 기존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조기집행을 촉구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모색

<독일 경기부양책 주요내역('20.6.4)>

(단위 : 억 유로, %)

내수시장 강화		미래 산업 투자	
주요 내용	규모	주요 내용	규모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20년 7.1일~12.31일까지 19→16%, (기존의 7% 적용 품목→5%))	200	교통 인프라	102.5
세제 혜택(감가상각 확대, 납부 연기)	113	수소경제	90
전력보조금	110	5G(인프라+기술)	70
일시적 아동수당 지급(한 자녀 당 300유로)	43	공공기관 디지털화	30
지자체 세제결손 총당	59	건물 친환경화	20
근로자 5대 보험 지원	53	AI	20
실직자 기초 생계 지원 관련 지자체 지원	40	양자기술	20
기타	165.4	기타	46
합계	783.4	합계	398.5

자료원 : 독일경제에너지부(BMWi)

* 주 : 이 외, 보건산업(€100.5억) 및 EU 협업(€30억) 예산을 포함해 총 1,312억 유로

- (백신 보급) 코로나19 변종 확산과 더불어 신종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에 총력

- * (백신공급 현황) 9.21일 기준 약 5,272만 명(독일 총 인구의 63.4%) 2차 접종 완료, 약 5,601만 명(독일 총 인구의 67.4%) 1차 접종 완료
- 9월말 유럽의약청(EMA)의 아동 및 청소년용 백신 승인 시 10월 중반부터 만 5세~12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접종 개시 예정

□ (양적완화) ECB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총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자산매입 프로그램(PEPP) 시행 ('21년 3월 누계 집계 기준)

- (긴급매입 프로그램) '20년 3월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조건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높인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도입
 - ECB는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 경기회복세 약화등에 대응하여 '20년 두 차례(6월, 12월)에 걸쳐 총 매입한도를 증액하고 운영기간을 연장
 - '21년 6.10일 자산매입 프로그램(APP) 역시, 월중 순매입 규모를 200억 유로로 유지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를 위해 정책금리 인상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운용할 예정
- (성과) ECB는 코로나 확산 이후 급변하는 거시경제 및 금융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어 PEPP의 신속적 운영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금융시스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ECB는 팬데믹 진행 상황 및 백신접종 속도 등과 관련하여 단기 불확실성이 높은점을 감안해 향후에도 통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PEPP를 포함한 모든 정책수단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유지
 - 특히 자산매입 시기, 규모, 구성 등을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PEPP가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유효성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판단
- (전망) 정책위원회가 팬데믹이 종식되었다고 판단할 때(최소 '22년 3월말)까지 총 1.85조 유로 한도의 채권매입 정책을 지속(최소 '23년 말까지 원금(상환금)재투자)
 - 시장에서는 ECB가 당분간 비슷한 수준의 순매입 규모를 유지하다가 9월경 통화정책 전략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APP 채권매입 확대 등을 통해 PEPP의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Barclay, Commerzbank)
- * PEPP가 '22년 3월 예정대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ECB는 기타 정책수단(APP 등)을 통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 有

- **(정책금리 동결)** ECB는 '21년 9월 기준금리(0.00%), 수신금리(-0.50%), 한계대출금리(0.25%) 등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
 - * 중기적으로 2% 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 예정
- (자료원 : ECB, 독일연방은행,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

2. 독일의 교역동향

□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 **(수출국)** '20년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등이며, 전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나,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2대 수출국으로 부상
 - 10대 수출국 중, 중국(2위, ∇ 2.46%), 폴란드(6위, ∇ 0.64%), 스위스(9위, ∇ 2.03%)를 제외하고는 모두 \triangle 4.03%~ \triangle 13.72%에 이르는 감소세 기록, 특히 대영 수출이 브렉시트 여파로 \triangle 13.72%의 높은 감소세를 기록
 - 한국은 18대 수출국으로 對한국 수출 규모는 20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40% 증가
- **(수출품목)** '20년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 부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기타 항공기 등이며, 총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triangle 7.31% 감소
 -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더불어 의약품과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며, 각각 한 계단 상승한 반면,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위시해 자동차 부품, 기타 항공기 등 산업용 품목 수출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

〈독일의 5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2019년			2020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489,441	△4.55	-	1,380,598	△7.31
1	자동차	146,816	△8.37	자동차	125,468	△14.54
2	자동차부품	62,332	△7.97	의약품	60,135	6.50
3	의약품	56,463	1.18	자동차부품	54,541	△12.50
4	기타 항공기	32,181	6.71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31,775	12.29
5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28,297	△2.65	기타 항공기	20,702	△35.67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및 수입품목

- (수입국) '20년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중국,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등으로 폴란드가 3대 수입국으로 부상, 브렉시트 여파로 대 영국 수입이 △4.38%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이어 10대 수입국 대열에서 제외 (수입시장 11위 기록)
 - '20년 對한국 수입은 102억 5,300만 달러, △2.43%의 소폭 감소세 기록, 코로나 19로 전반적인 수입 경기가 양호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전년과 같은 24위 기록, 수입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0.85%→0.88%)
- (수입품목) '20년 독일의 연간 수입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내수 부진으로 △5.14%를 기록,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자동차 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컴퓨터 등으로 나타남
 - 예년 대비 몇몇 품목의 순위 변동 외,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더불어 의약품(▽10.14%)을 위시해 디지털화와 언택트 문화 확산의 영향 하에 기존의 시장 포화로 감소세를 보이던 컴퓨터가 ▽11.73%로 뚜렷한 증가세 기록

<독일의 5대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2019년			2020년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234,004	△3.92	-	1,170,577	△5.14
1	자동차	72,114	11.65	자동차	65,501	△21.1
2	석유 및 역청유(원유)	40,739	△9.64	의약품	33,679	10.14
3	자동차부품	39,688	△9.53	자동차부품	32,945	△16.99
4	의약품	30,578	6.59	석유 및 역청유(원유)	27,423	△32.69
5	컴퓨터	21,618	△0.30	컴퓨터	27,317	11.73

자료 : Global Trade Atlas

※통계 기준(달러화)을 위시해 통계 집계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GTA 수출입 증감률은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 수치와는 편차가 있을 수 있음

III. 지역 현안

□ 독일정부, 기후중립 조기 달성 목표 추진

- 독일은 '45년(기존 '50년 목표)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도적 역할 강화 전망
 - * '19년 9.20일 독일은 500억 유로의 기후보호 프로그램 시행에 합의한 데 이어, '21년 5.5일 독일 정부는 기존 '50년까지의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45년으로 상향조정 및 '30년까지의 CO2 감축 목표 역시 기존 55% → 65%로 상향조정
- 코로나19 위기 후 경기침체 극복 및 기후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 전반의 대대적 변화로 그린경제로의 전환 촉진 전망
 - (그린 딜) 독일 외에도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 국가 내 탄소배출 감축 경쟁이 확대되면서 그린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 전망
 - * '19년 10월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하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합의, '19년 12월 EU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며, 새로운 도전과제이자 성장전략으로 그린 딜(Green Deal) 발표 및 '20년 12.11일 '30년 CO2 감축(1990년 대비) 목표를 기존의 40% → 55%로 상향 조정 발표
 - 특히 수소에너지를 에너지전환과 기후보호를 위한 핵심 역량 집중 분야로 육성 계획 추진

- **(수소경제)** '20년 6.10일 독일 정부는 대대적인 '수소전략'을 발표해 '40년까지 10GW의 수소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수소 생산·연구개발·수소인프라·국제협업 등에 90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 수소자동차·버스·트럭 구매보조금, 수소충전소 신설 및 수소연료전지 부품기업 지원 등 독일 전역 내 수소교통인프라 구축 추진
 - * '21년 1월 독일교육연구부(BMBF)는 '20년 경기부양책 예산으로 그린 수소 생산 및 운송 관련 프로젝트(H2Giga, H2Mare, TransHyDE)에 '25년 까지 7억 유로 투자 발표, 약 230개의 산학파트너로 구성된 3개의 컨소시엄 구축
 - * 독일 Audi, Bosch, ElringKlinger, Mahle, 콘티넨탈 등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
 - * '21년 5.28일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는 수소기술 분야에서의 세계 1위를 목표로 62개의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선정, 총 80억 유로 지원 예정, 이는 '20년 6월 독일 국가수소전략 실행 및 유럽 공동의 이익을 위한 중요프로젝트(IPCEI) 프로그램 차원에서 22개 EU 파트너와 공동 협업 하에 수행될 예정
 - * '20년 7.8일 EU 역시 독일에 이어 수소전략(Hydrogen Strategy) 공식화, 수소 기반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선언, '20년~'24년까지 총 6GW 규모의 수소생산 설비를 통해 연 100만 t의 수소 생산 예정, '30년까지 40GW, 1,000만 t 달성 목표, '30년~'50년 탈탄소화 실현 목표

-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 대응 및 한·독 및 한·EU간 그린 신성장 사업 협력 기회 확대 모색 필요
 - * 한국도 '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1년 6월 경 탄소중립 초안 발표 예정
 - 저탄소·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역량 개발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신산업 분야에서 보다 많은 협력 도출 필요

□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EU 차원의 반도체 산업 자립에 박차**

- **(기술주권 확보)** '20년 코로나19 위기 속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EU의 반도체산업 자립을 위한 움직임 본격화
 - *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동차 출하량 감소 예상, 파운드리 생산 용량을 5G 스마트폰, 게임용 반도체 등으로 대체했으나 3분기부터 자동차 업계 수요가 회복되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심화
 - 차량 반도체 부족 지속으로 '21년 독일 자동차 기업 생산 전망 하향 조정

*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폴크스바겐, 다임러 등 독일 자동차업체의 차량생산에 차질이 초래된 바, 반도체산업 해외의존에 대한 경각심 부상, 독일 내 생산이 기존의 전망인 전년 대비 420만 대(▽20%)가 아닌 400만 대 생산(▽13%)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방적 의존을 탈피하여 반도체 산업을 EU의 경쟁력 있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EU의 기술주권 확보 및 유럽 경제의 지위 강화 필요성 부각

○ **(공동대응 강화)** '20년 12.7일 EU 통신/디지털장관 화상회의 개최, 총 21개 EU 회원국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반도체기술 분야에서의 유럽 이니셔티브 발족을 위한 공동 선언 (Joint Declaration)에 서명, 유럽공동관심프로젝트(IPCEI)를 통해 반도체의 개발, 설계, 생산 지원 계획 발표

*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유럽연합의 전략적 목표와 유럽의 산업 성장과 고용,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유럽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

* 이번 프로젝트는 '18년 진행된 1차 마이크로전자 IPCEI(17억 5,000만 유로 규모, 총 29개 유럽 기업 참여, 40개 프로젝트 추진)에 이은 제2차 마이크로전자 IPCEI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약 1,450억 유로 예상

-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유럽의 역량 강화 및 최첨단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지속 전망에 따른 소재 및 장비 기업의 유럽 진출 기회 모색 필요

* 이 외에도 독일은 프랑스 및 EU와 함께 유럽의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정책 강화 노력, 핵심 정책수단으로 IPCEI를 통해 반도체 외에도 배터리, 수소 관련 프로젝트 추진 중

□ '21년 독일 자동차 시장 회복세 진입 및 '전기차' 시대로의 재편 가속화

○ **(완성차 판매 회복세)**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과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따른 영향이 업계에 전이되며 독일 자동차 시장은 높은 감소세 기록, '21년 전년의 부진을 딛고 회복세 진입

- '20년 연간 신규등록대수는 292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1% 감소

* '21년 4월 당월 기준 신규 등록 차량 수는 22만 9,650대로 전년 대비 ▽90%(코로나19 시점), '19년 대비 △26%로 예년 수준 미 회복, '90년 통독 후 제2의 최저 판매량 기록, '21년 4월 누계 기준 신규 등록차량 수는 총88만 6,1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기록

○ 독일 자동차업계는 전기차를 주축으로 한 시장 재편 가속화 양상

- '20년 연간 누계 전기차 신규등록대수 총 19만 4,163대로 신기록 경신,

- '19년 63,281대 대비 +206.8% 증가, 전기차 비중이 4.9% → 6.7%로 상승
- '21년 4월 누계 순수 전기차 신규등록대수는 88,510대로 이미 '19년 연간 총 판매량 초과
- * 순수 전기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 '21년 4월 누계 ▽414%, 4월 당월 ▽166% 증가

- **(전기차 충전인프라)** '21년 2월 기준 독일 내 총 39,538개의 충전기(Ladepunkte)* 보급, 총 충전기 7개 중 1개가 고속충전소(Ladesaeule)이며, 전력기업이 충전소의 3/4 운영 중
 - **(보급 계획)** '19년 11월 독일정부는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 마련, '30년까지 100만 개 충전기 설치 보급 예정, '21년까지 5만 개 공공충전기 설치 예정
- 독일 정부는 '19년 11월 국가차원의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플랫폼의 지원 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발표한 데 이어, 민간 충전 인프라 지원('20년 11월 이후, 900 유로), 충전소 결제 시스템 표준화 예정('23년 7.1일 이후) 등 계획 추진 중
- 다임러(Daimler)/메르체데스-벤츠(Mercedes-Benz)나 BMW, 폴크스바겐(VW) 등 독일 주요 OEM 역시 전기차 개발에 총력, 특히 VW은 '40년 이후 모든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예정
 -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경쟁과 더불어 새로운 밸류 체인 구축 등 재편되는 기업 생태계 내 시장 입지 구축을 위한 친환경 기술경쟁력 확보가 관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회 발굴 I: 코로나 유망상품

- **(언택트 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 시장 수요 증가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세를 상쇄
 -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은 대안으로 부상하며, 디지털화 가속화
 - 코로나19 이후로 홈 엔터테인먼트 제품 등의 디지털기기를 위시한 소형·청정가전, 식품및 건강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 지속 유망
- **(포스트코로나 신규 시장 대응)** 코로나19 방역시장은 현 추세로 보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 시장 반응이 좋은 제품의 시장 진입 성과를 활용해 기타 제품의 시장 진입 기회로 확대 노력이 필요

- * 코로나19 팬데믹 지속과 더불어 면역혈청, 백신, 비타민제 등이 포함된 의약품 수출이 급증,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상승한 진단키트, 검체 채취키트(바이러스 수송배지), 마스크 등도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편승효과 지속전망
- *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반응으로 시장 진입이 매우 어려웠던 독일 의료용품 시장 내 수출기회 확대, '20년 HS 382200(진단키트), 382100(수송배지), 630790(마스크), 300215(면역물품) 기준 한국의 대독 수출이 각각 $\nabla 640.3\%$, $\nabla 145.7\%$, $\nabla 899.1\%$, $\nabla 591\%$ 증가 (자료원 : K-stat)
- 올 한해 의료"E위생용품 및 의료진단기기 지속 수출 수요 기대, 향후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이나 원격의료시스템 등 디지털 헬스 제품 수출에도 청신호

○ (디지털 전환)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틈탄 신규 수요 발굴

- * 독일 정부는 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5G 인프라(€50억) 및 5G-6G 기술(€20억) 외 공공기관 디지털화(€30억) 등을 추진, 기존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조기집행을 촉구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노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회 발굴 II : 新밸류 체인 기회 모색

○ (미래 핵심 산업)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기업의 설비 투자 증가 및 미래 핵심 산업 분야 투자 확대 추세에 편승한 수입 수요 기대

○ (전기차 시대 급물살) 독일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22억), 충전소 확충 및 전기차·배터리셀 연구(€25억) 등에 전폭적으로 투자, 전기차 사회 전환 가속화에 따른 관련 국내 기업의 협업 기회 확대

- 특히 독일 친환경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른 전기차 수요 증가와 국내 기업의 신차 출시로 국내기업의 시장 내 입지 확대 추세 지속
- * 국내 기업의 현지 생산 체재 확대로 직수출 비중은 낮으나, 독일 시장 내 4월 누계 기준 현대 $\nabla 11.1\%$, 기아 $\nabla 1.3\%$, 4월 당월 기준 현대 $\nabla 135\%$, 기아 $\nabla 72.3\%$ 로 선전 중

○ (新비즈니스 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GVC 변화에 대응해 장기 차원의 공급 분산화 추세에 편승한 밸류 체인 구축 및 신성장 시장 수요 대응, 특히 독일 OEM의 현지화 전략 및 멀티 소싱(공급 분산화) 계획 대응이 중요

- * 지난 20여 년간 높은 對中 의존도로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유럽 GVC 한계점 부각,

- 특히 중국 중심의 공급 의존도에서 탈피, 공급망 다변화와 위험 분산에 대한 관심 대두
- 자동차부품 분야 밸류 체인의 변화와 자동차, 기계, 전자 분야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 공급체계 구축에 대비해 우리기업의 혁신 분야 발굴 및 집중 공략 필요
- * 코로나19 이후 독일 OEM은 모든 부품 군에 최소 2~3개 이상의 멀티 소싱 계획 예정 (자료원 : Global Partnering(GP) 유럽 미래차 시장동향 설명회)
- 관련 신소재 부품, 수소차와 전기차 및 스마트형 제품 시장 공략을 위한 부품 개발 및 시장 판로 개척에 역량 집중 필요, 시장 주도권 변화에 편승한 고부가가치 상품 판로 개척이 관건
- * 차후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의 핵심이 반도체로 이전되며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로의 이전 단계에서 꾸준한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

IV. 한-독 경제교류 현황

□ 수출입 동향

- **(수출)** '20년 對독일 수출은 전년대비 ∇ 10.3% 증가한 95.8억 US\$를 기록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반도체 등의 수출이 급증 하면서 대독 수출을 견인하며, 수출 수요 둔화 상쇄
 - '21년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요 회복세와 전년도 상반기 기저효과로 '21년 4월 누계 기준 대독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 41% 증가한 42.3억 US\$를 기록하며 선전 중
- **(수입)** '20년 對독일 수입은 전년 대비 ∇ 3.7% 증가한 206.8억 US\$를 기록
 - '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에 따른 산업생산 및 소비 감소에도 독일 제품 수요가 유지되며, 완만한 증가세 시현
 - '21년 4월 누계 기준 대독 수입은 백신 보급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국내 산업수요도 전년 기저효과로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년 동기대비 ∇ 4.0% 증가한 70억 US\$를 기록
 -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백신 공급 확대 등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부상과 더불어 소비 수요 소폭 상승세

<한-독일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7	8,484	31.7	19,749	4.4	△11,265
2018	9,373	10.5	20,854	5.6	△11,482
2019	8,686	△7.3	19,937	△4.4	△11,251
2020	9,576	10.3	20,681	3.7	△11,105
2021.4	4,226	41.0	7,002	4.0	△2,776

자료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 '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독일 수출은 농약 및 의약품과 반도체가 각각 ▽243.4%, ▽22.2%로 선전하며, 수출 증가세 시현
 - '21년 4월 누계 집계 결과,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저효과로 ▽41%의 높은 수출 증가세 기록
- '20년 코로나19 위기 속 농약 및 의약품이 ▽243.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부진(△17.6%)을 틈타 수출 1위에 등극
 - 코로나19 영향 하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계요소 등 기간 산업군이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언택트 소비 증가 추세에 힘입어 반도체(▽22.2%), 컴퓨터(▽51.2%)가 선전하며 수출 견인, 특히 언택트 수요 확대에 서버용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출 호조
 - 건전지 및 축전지 역시 독일 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신규 배터리 수요 증가 및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선전으로 대독 수출 3위로 전년과 동일하게 탄탄한 입지 유지
- '21년 4월 누계 집계 결과, 코로나19 장기화 속, 농약 및 의약품이 ▽165.8% 증가율을 기록하며 자동차 수출 회복세(▽64.7%)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출 1위 유지

- 전년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로 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10대 품목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역시 전년도 부진을 딛고 ▽149.5%의 높은 수출 성장세 시현
- 경기 회복에 따른 산업 수요 상승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호조를 띄며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전반적인 산업 수요 회복세와 더불어 대독일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세 기대

<對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2020년		2021년 4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9,756	10.3	4,226	41.0
1	농약 및 의약품	1,880	243.4	1,019	165.8
2	자동차	1,320	△17.6	696	64.7
3	건전지 및 축전지	1,014	5.8	348	2.6
4	반도체	762	22.2	299	21.3
5	자동차 부품	575	△13.6	216	9.6
6	무선통신기기	314	△7.7	199	149.5
7	합성수지	199	△33.5	93	16.7
8	고무제품	169	2.1	89	73.5
9	기계요소	157	△15.4	68	23.4
10	컴퓨터	251	51.2	67	△6.8

자료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20년 코로나 팬데믹 영향 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 산업 및 수입 수요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농약 및 의약품, 반도체,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수요 증가세와 더불어 총 對독일 수입은 3.7% 증가
- 주요 10위 수입품목 중, 특히 원동기 및 펌프(△22.0%), 기계요소(△11.5%), 자동차부품(△7.0%) 등 산업용 품목군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인 반도체 수요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이 ▽44.2% 증가하여 '19년 12위 → 5위로 부상

- '21년 4월 누계 기준 집계 결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전년도 기저효과로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10대 수입품목이 상승세 시현
 - 특히 기타 정밀화학제품(▽75.7%), 반도체 제조용 장비(▽61.4%), 원동기 및 펌프(▽38.2%), 반도체(▽22.6%) 등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수입 시장을 견인

<對독일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 목	2020년		2021년 4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 계	20,681	3.7	7,002	4.0
1	자동차	5,967	8.8	1,942	△0.7
2	농약 및 의약품	1,234	7.5	425	3.2
3	반도체	744	23.9	293	22.6
4	계측제어분석기	766	△2.2	256	9.8
5	반도체 제조용 장비	549	44.2	236	61.4
6	자동차부품	678	△7.0	225	1.9
7	정밀화학원료	557	△1.1	206	12.4
8	원동기 및 펌프	468	△22.0	200	38.2
9	기계요소	519	△11.5	198	19.3
10	기타 정밀화학제품	296	△4.1	141	75.7

자료 : K-Stat

V. 투자동향

□ 독일의 對한국 투자

- 독일은 유럽 투자국가 중 3위 투자국으로 전체 EU지역 투자의 13%를 차지, 자동차 및 부품기계, 화학, 전기전자, 의약, 의료기기 등 주요산업 분야에 총 510여 개 독일계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진출
 - 연도별 투자규모는 5개년 평균 총 4.8억 달러 수준, 투자건수는 '17년부터 감소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독일기업의 해외투자 총규모는 '19년 대비 29% 감소, 장기적 글로벌 무역분쟁,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전체 해외투자 축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對한국 투자는 '20년 기 진출기업의 합작사 지분인수 등 대형투자 영향으로 총 5억 1,700만 달러 투자신고 금액 증가

- * '20년도 주요 투자사례 : C사(자동차부품) 합작법인 지분인수, W사(자동차부품) 전기차 부품 신사업 증액, D사(물류) 국내서비스센터 확장 증액 등
- 특히 '21년 1분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소재개발 등 친환경·저탄소 사회대응을 위한 K-뉴딜 분야, 제조업 첨단화를 위한 신소재, 포스트 코로나 관련 IT 및 온라인서비스 분야 투자 사례에 주목
- * '21년도 주요 투자사례 : D사(전자상거래) 국내기업 인수 (21억 달러), V사(에너지) 풍력단지 개발 프로젝트 참여, S사(첨단소재) 반도체 및 전기차 등 신소재 개발 등
- 독일 기업의 對한국 투자업종은 화학, 자동차 및 기계설비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식품 및 소재분야로 다양화, 또한 국내에서 독일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른 자동차 금융 및 모빌리티서비스 분야 동반 진출, 합작사 또는 파트너사 인수 등 투자 형태가 확대되는 추세

<독일의 對한국 투자 추이(연도별 투자신고 기준)>

(단위 : 억 US달러,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62 ~ '20)
금액	5.4	3.1	7.0	4.7	4.0	5.2	146.4
건	75	52	79	57	53	51	2,205

자료 : 산업통산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한국의 對독일 투자

- 해외직접투자통계('80년~'20년)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對독일 투자금액은 총 65.2억 달러 규모이며 총 774개의 법인/사무소 형태로 진출
 -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유럽으로의 '20년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전년대비 29.5% 감소하였으나, 독일진출은 대형 투자에 따라 총 7.3억 달러로 전년도 수준 유지
 - '2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규 법인설립은 각각 15건과 17건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진출건수가 전년대비 114% 증가
- 대부분 한국기업은 유럽 경제 중심지인 독일에서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영업거점을 구축하고자 판매법인(GmbH) 또는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형태로 진출
 - 독일은 한국 및 다른 유럽국가와의 왕래가 편리한 이점뿐만 아니라, 고급

- 인력수급, 현지 고객지원을 위한 서비스센터 및 물류거점 인프라 강점
- 최근에는 효과적인 해외 고객확보 및 판로개척, 기존 핵심역량 강화 및 사업구조 다변화를 목적으로 독일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진출에도 관심 고조
 - * 연성정밀화학은 '21년 1월 독일 원료약 기업인 Arevi Pharma 인수 완료
- 주로 자동차 및 부품, 화학, 기계업종의 한국기업이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전자정보통신, 의료기기, 소비재와 같은 신 성장 분야, 금융 및 전문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으로도 확대
 - * 현대캐피탈은 '20년 독일 렌터카기업 Sixt의 자회사 Sixt Leasing 지분을 인수, 현대캐피탈뱅크 유럽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과 리스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유럽 자동차 금융시장에 진입
- '21년 이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독일 정부 및 산업계 주도 디지털화 확산 추세로 독일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구축을 위한 신기술 확보와 전략적 제휴 수요 확대 및 산업별 밸류 체인 변화에 따라 한국기업의 독일 시장 진입 기회 확대 전망
 - * 독일폴크스바겐의 '25년 전기차 배터리 양산을 위한 설비구축 과정에 한국 장비기업들의 참여사례 有

<한국의 對독일 투자 추이(연도별 해외직접투자통계 기준)>

(단위 : 억 US달러,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누계 ('80 ~ '20)
금액	2.2	1.4	2.1	2.3	7.2	7.3	65.2
신규법인	46	38	51	42	41	38	77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VI. 바이에른 주요 전시회 현황

< 독일 바이에른주 주요전시회 현황 >

전시회명	기간 (주기)	도시	규모		
			면적 (m ²)	참가업체(개사)	
				외국	독일
광학&디자인전 Opti	1월 (매년)	뮌헨	57,700	332	268
동계스포츠용품전 ispo	1월 (매년)	뮌헨	200,000	2,553	297
국제장난감전 Spielwarenmesse	2월 (매년)	뉘른베르크	170,000	2,713	586
유기농 건강 상품전 BioFach + Vivanness	2월 (매년)	뉘른베르크	110,300	2,750	988
시계·보석 상품전 INHORGENTA MUNICH	2월 (매년)	뮌헨	65,000	468	566
야외활동 용품전 IWA & OutdoorClassics	3월 (매년)	뉘른베르크	104,300	1,314	305
유럽 코팅쇼(표면처리 전시회) European Coating Show	3월 (격년)	뉘른베르크	81,300	799	357
국제건축.건설.광산기계전 bauma	4월 (3년)	뮌헨	614,000	2,419	1,265
레이저 전문전 Laser World of Photonics	4월 (격년)	뮌헨	55,000	835	490
전력 공급 기술·상품전 PCIM Europe	5월 (매년)	뉘른베르크	25,000	286	239
환경전시회 IFAT	5월 (격년)	뮌헨	260,000	1,580	1,725

센서·공정 측정 기술전 SENSOR+TEST	5월 (매년)	뉘른베르크	18,600	211	327
태양에너지전 Intersolar	5월 (매년)	뮌헨	65,000	610	284
전자 기계 공학전 AUTOMATICA	6월 (격년)	뮌헨	66,000	263	627
아웃도어 스포츠용품전 Outdoor by ISPO	6월 (매년)	뮌헨	101,700	964	172
도시환경 조성 상품전 GaLaBau	9월 (격년)	뉘른베르크	126,800	308	945
e-모빌리티 전문전 eMove360° Europe	11월 (매년)	뮌헨	17,000	108	134
제어·센서시스템 전문전 SPS IPC Drives	11월 (매년)	뉘른베르크	135,500	548	1,037
전자 부품·시스템전 electronica	11월 (격년)	뮌헨	182,000	2,372	1,076
제품 생산 기술전 productronica	11월 (격년)	뮌헨	88,000	781	760

* 자료원: 독일전시산업협회([auma](#)), 통계 수치는 '18~'20년 전시회 자료임.

※ 상기 전시회는 코로나19 및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 또는 개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시회 참가 및 참관 전에 반드시 주최 측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Ⅶ. 뮌헨 시내 주요 관광지

□ 뮌헨 시내

○ 바이에른 왕국 궁전 (Residenz, 레지덴츠)



1385년에 뮌헨 외곽에 Neuveste라는 성(城)을 쌓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수 세기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 1508년부터 1918년까지 바이에른 공작, 선제후, 왕들의 집무실 및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함.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양식으로 장식된 100여개의 방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이에른 왕실의 왕관이 전시되어 있는 보물의 방(Schatzkammer)인데, 이 밖에도 비텔스바흐(Wittelsbach) 가문의 초상화 등 많은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 * 입장료 : 레지덴츠 박물관: 9유로, 보물의 방 : 9유로
- * 개관 시간 : 09시~18시 (하절기/4월~10월15일),
10시~16시 (동절기/10월 16일~3월)
- * 위치 : S-Bahn/U-Bahn의 Marienplatz역에서 하차, 신 시청사 옆 Residenzstrasse를 따라 도보로 8분소요
- * 홈페이지 : www.residenz-muenchen.de

○ 뮌헨 新시청 (Neues Rathaus, New Townhall)



뮌헨 마리엔 광장(Marienplatz)에 위치하며 신 고딕 양식으로 건축되었음. 매일 오전 11시, 낮 12시, 오후 5시에 시간을 알리는 글로켄슈필(사람 크기의 인형)이 유명함. 1867~1908년 신시청사 개축 시 43개의 종과 32개의 실물사이즈 인형으로 만들어졌음. 처음에는 1568년에 있었던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Hofbräuhaus 건립자)와 레나타의 결혼식이 재현되고 이어서 무용수들이 나와 즐겁게 춤을 추는데 이는 1515년부터 1517년까지 유행했던 페스트가 사라짐을 알리고 이를 기념하는 의식임.

- * 위치 : Marienplatz 8, 80331 Munich

○ 뮌헨 성모 교회 (Frauenkirche)



마리엔 광장에서 약간 서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프라우엔(성모) 교회. 규모가 너무 커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만 교회 전체가 다 보일 정도임. 높이 109m, 폭 40m에 이르는 거대한 성모 교회 꼭대기에는 2개의 둥근 모양의 탑이 있음. 프라우엔 교회 내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막시밀리안 황태자 묘와 악마의 발자취*.

* 악마의 발자취란 ?

교회 건축 당시, 건축가와 악마의 거래에 대한 전설로 이름이 생기게 되었음. 악마가 성모 교회 건설에 일조하는 조건으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볼 수 없도록 해주겠다고 건축가가 약속을 했으며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건축가가 악마를 안내한 자리에만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만들었다고 함. 나머지 자리는 밝은 빛이 들어오며, 그 악마가 창문이 보이지 않는 한 자리로 걸어갔는데 발자국이 남았다는 설이 전해져오면서 '악마의 발자취'란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함.

○ 알터 피터(Alter Peter) 교회



뮌헨에서 가장 오래된 교구 교회로 뮌헨 신 시청사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며 306개의 계단을 오르면 뮌헨 시 전체와 뮌헨 외곽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음. 날씨가 좋으면 알프스와 독일 최고봉 추크슈피체 (Zugspitze)까지도 보임.

* 입장 요금 : 3유로(어른)

* 주소 : Rindermarkt 1, 80331 München

* 관람 가능 시간 : 10:00~18:00

* 웹사이트 :

<https://www.erzbistum-muenchen.de/pfarrei/st-peter-muenchen/cont/70053>

○ 뮌헨 렌바흐하우스 시립미술관(Lenbachhaus)



비스마르크 초상화가로 유명한 Franz von Lenbach의 화랑 겸 자택을 1928년 뮌헨시립미술관으로 건립. 세계 최대의 청기사파 작품 소장 미술관으로 바실리 칸딘스키, 가브리엘 뮌터, 프란츠 마크 등 청기사파 (Der Blaue Reiter) 화가들의 작품 관람 가능. 2009년 봄부터 4년여의 보수, 확장 공사를 마치고 2013년 5월 8일 재개관함.

- * 입장료 : 10유로
- * 개관시간 : 목~토요일 10~20시, 화/수/일요일 10~18시 (일요일 휴관)

- * 주소 : Luisenstraße 33, 80333 München
- * 홈페이지 : <http://www.lenbachhaus.de>

○ 고대, 근대, 현대미술관 ([알테](#), [노이에](#), [모데르네 피나코텍](#))



알테 & 노이에 피나코텍, 피나코텍 모던 (Alte & Neue Pinakothek, Pinakothek der Moderne) 은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알테피나코텍에는 중세~로코코 시대까지의 작품을 전시. 노이에 피나코텍에는 18세기 후반~20세기까지의 예술작품 전시. 제일 최근에 생긴 피나코텍 모던은 알테 피나코텍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세기 이후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특히 노이에 피나코텍은 루벤스의 작품, 알테 피나코텍은 알브레히트 뒤러의 자화상으로 유명.

- * 주소 : Barer Strasse 27, 29, 40(알테 피나코텍, 노이에 피나코텍, 피나코텍 모던)
- * 대중교통
 - U-Bahn 역 : Theresienstrasse (U1, U2, U8)
- * 노이에 피나코텍은 보수공사로 인해 2025년까지 폐관

○ 독일 과학박물관 (Deutsches Museum)



1903년에 개관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과학박물관. 독일 및 세계의 과학 기술 발전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음. 지하 1층에는 박물관 소장 전시품 중 최대(42m)인 잠수함(U1, 1906년 진수)이 전시.

- * 입장료 : 14 유로
- * 개관시간 : 09-17시
- * 주소 : Museumsinsel 1, 80538 München
 - U1, U2 : Frauenhoferstrasse역, S-Bahn : Isartor역 하차
- * 홈페이지 : <http://www.deutsches-museum.de>

○ BMW 박물관 (BMW Museum)

- * 1978년 개관
- * 연면적 5,000m²에 BMW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는 120여 전시품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등) 전시
- * 위치 : BMW 본사 바로 옆
- * 주소 : Am Olympiapark 2, 80809 München
- * 개관시간 : 10시~18시 (월요일 휴관)

○ BMW 전시 체험관 (BMW Welt)



오스트리아 건축회사 Coop Himmelb(l)au사가 설계 공모전에 당선, 2003년 착공 총 5억 유로의 공사비를 투입 2007년 완공. BMW 자동차, 오토바이전시 홍보관. BMW 벨트는 체험공간과 콘서트홀, 레스토랑 등을 건물 내 배치해 일반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BMW에 친숙해지고, BMW 오너들이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지켜보도록 만들어져 있음.

- * 입장료 : 무료
- * 위치 : Am Olympiapark 1, 80809, Muenchen
- * 개관시간 : 매일 9시-18시
- * 홈페이지 : <http://www.bmw-welt.com>

○ 유대박물관 (Jüdisches Museum Muenchen)



2007년 개관한 뮌헨 유대인 역사박물관

- * 주소 : St.-Jakobs-Platz 1, 80331 München
- * 전화 : +49-89-233-96096
- * 개관 : 화~일: 10시-18시 (월요일 휴관)
- * 입장료 : 6유로
- * 홈페이지 : www.juedisches-museum-muenchen.de

○ 뮌헨 역사박물관 (Münchner Stadtmuseum)

- * 주소 : St.-Jakobs-Platz 1, 80331 München
- * 전화 : +49-(0)89-233-22370
- * 개관 : 화~일: 10시-18시(월요일 휴관)
- * 입장료 : 7유로
- * 홈페이지 : www.muenchner-stadtmuseum.de

○ 바이에른주 주립 박물관 (Bayerisches Nationalmuseum)

- * 주소 : Prinzregentenstraße 3, 80538 München
- * 전화 : +49-(0)89-2112-401
- * 개관 : 화~일: 10시-17시(월요일 휴관) 목요일: 10시~20시
- * 입장료 : 7유로
- * 홈페이지 : <http://www.bayerisches-nationalmuseum.de>

○ 님펜부르크 성 (Schloss Nymphenburg, 뮌헨 시 외곽 소재)



17세기 후반부터 약 19세기까지 지어진 이곳은 독일을 지배하던 바이에른 왕국의 여름 별궁으로 사용되던 곳. 뤼첸 백조의 성을 건축, 동화의 왕으로 유명한 루트비히 2세가 이곳에서 1845년 8월 25일 출생함. 루트비히 2세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3세 때에 님펜부르크성에서 공연된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에 큰 감동을 받음. 18세에 왕위에 오른 이후 리하르트 바그너(Richard Wagner)의 적극적인 재정 후원자가 됨.

- * 주소 : Schloss Nymphenburg 1, 80638 München
- * 입장료 : 일반 8유로
- * 웹사이트 : www.schloss-nymphenburg.de

○ 호프브로이하우스 (Hofbräuhaus)



1589년 바이에른 공작 빌헬름 5세(1579-1597)가 가이젠펠트 수도원(Geisenfeld Monastery)의 수석 양조장인 Heimeran Pongraz를 스카웃 Hofbräuhaus 양조장 설계, 개발토록 함. 인근Alter Hof에서 1592년 맥주 생산 시작. 1607년 현재의 장소로 양조장 옮김. 1828년부터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됨. 이때부터 매우 유명해져 명성을 얻게 되었고, 2004년부터는 뮌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나라에도 호프브로이 하우스가 생겨났음. 이곳에서 매일 바이에른 전통 음악이 연주됨.

- * 위치 : Am Platzl 9, Muenchen,
- * Tel : +49-(0)89-290-1360
- * 홈페이지 : <http://www.hofbraeuhaus.de>

○ 뫼프 회페(Fuenf Hoefe)

북경 올림픽 주경기장 설계 회사인 스위스 Herzog & de Meuron사의 설계로 2003년 완공한 연면적 48,000 평방미터 규모의 현대식 쇼핑몰.

1일 평균 방문객 22,000명.

- * 주소 : Theatinerstraße 15, 80333 München
- * Tel : 089/2444 958-0
- * 홈페이지 : <http://www.fuenfhoefe.de>

○ 다카우 포로수용소 (뮌헨 북서부 28km, Dachau시 소재)

히틀러가 1933년 독일 최초로 만든 강제수용소. 처음에는 정치범 수용을 위해 만들었으나 2차 대전 발발 후 전쟁 포로수용소로 활용.

- * 주소 : Alte Roemerstrasse 7, 85221 Dachau
- * 개관 : 매일 09:00-17:00 (단, 12월24일 휴관)
- * Tel : +49-(0)8131-66 99 70
- * 홈페이지 : www.kz-gedenkstaette-dachau.de

○ 백조의 성 (Schloss Neuschwanstein, 뮌헨 남서부 128km 소재)



바이에른의 왕 루트비히 2세(1845-1886)가 로맨틱 가도 남부 끝인 바이에른 주 뤼센(Fuessen)근교의 호헨슈반가우(Hohenschwangau)에 지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현재 바이에른 주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디즈니랜드 성의 모티브가 된 성으로 유명함.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바이에른의 유명 관광지임.

- * 위치 : Neuschwansteinstrasse 20, 87645 Hohenschwangau
- * 개관 : 09:00-18:00 (3.24-10.15 까지), 10:00-16:00 (10.16-3.23 까지)
- * Tel : +49-(0)8368-930-830
- * 요금 : 13유로 (만18세 이하 무료)
- * 홈페이지 : <http://www.neuschwanstein.de>

Ⅷ. 한국/독일 식당정보

□ 한식당

○ 서울

- 주소 : Leopoldstraße 120, 80802 München
- 인근 전철역 : U3/U6, Münchener Freiheit역 하차 후 도보 10분 거리
- Tel : 089-348 104
- 영업시간 : 화-일 : 12:00-14:30, 18:00-23:00 (월요일 휴무)

- 아리수
 - 주소 : Triftstraße 1, 80538 München
 - 인근 전철역 : U4/U5, Tram 17 Lehel역 하차
 - Tel : 089 2424 3594
 - 영업시간 : 월-금 : 11:00-15:00, 18:00-22:00

- 김가네
 - 주소 : Theresienstraße 138
 - 인근 전철역 : U2 Theresienstraße 역
 - Tel : 089 3796 6880
 - 영업시간 : 화-일 : 11:30-14:30, 18:00-23:00 (월요일 휴무)

- 한식
 - 주소 : Thomas-Wimmer-Ring 9, 80539 München
 - 인근 전철역 : S-Bahn, Isartor역 하차 후 도보 10분 거리
 - Tel : 0179 1423 207
 - 영업시간 : 월-금 : 06:30-15:00, 토요일 11:00-20:00 (일요일 휴무)

- 유유미 (Yuyumi)
 - 주소 : Fraunhoferstraße 11, 80469 München
 - 인근 전철역 : U1/U2/U7/U8 Fraunhoferstrasse역 하차 후 도보 5분 거리
 - Tel : 089 2420 7624
 - 영업시간 : 일-목 : 12:00-22:00, 금~토요일 12:00-22:30

☐ 독일식당

- Ratskeller (라츠크렐러)

뮌헨 신시청사 지하에 위치한 식당으로 가격은 저렴하지 않지만 정통 독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 주소 : Marienplatz 8, Muenchen
 - 영업시간 : 10:00-24:00
 - 웹사이트 : www.ratskeller.com

- Hofbraeuhaus (호프브로이하우스)
 - 1589년 개관한 뮌헨의 대표적인 맥주 홀. 연중 관광객으로 붐벼 빈 자리를 찾기 어렵다. 히틀러가 나치당 정강 정책을 발표했던 곳임.
 - 주소 : Platzl 9, Muenchen
 - 영업시간 : 09:00-23:30
 - 웹사이트 : <http://www.hofbraeuhaus.de>

- Zum Franziskaner (쭌 프란치스카너)
 - 주소 : Residenzstraße 9. 80333 München
(뮌헨 시청에서 도보 5분 거리, 건너편에 뮌헨 오페라하우스 소재)
 - Tel : 089-23 18 12 0
 - 웹사이트 : www.zum-franziskaner.de
 - 특징 : 쉼바인학세(Schweinaxe)와 바이스 비어가 맛있음.

- Weißes Bräuhaus (바이세스 브로이하우스)
 - 주소: Tal 7, 80331, München,
 - Tel: 089-2998 75
 - 웹사이트: <http://www.weisses-brauhaus.de>
 - 특징: 바이스비어(밀 맥주, Weißbier)가 특히 유명함

- L'Osteria München Am Gasteig (로스테리아 뮌헨 암 가스타익)
 - 주소: Innere Wiener Straße 2, 81667, München,
 - Tel: 089 62232 805
 - 웹사이트: <https://losteria.net/de/>
 - 특징: 이탈리아 요리 전문점

IX. 바이에른 주요 축제

- 뮌헨 옥토버페스트(Oktobefest)
 - 개요 : 백조의 성을 지은 루트비히(Ludwig) 2세의 할아버지인 Ludwig 왕자(1세)와 테레제(Therese) 공주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뮌헨 시민을 초청, 경마대회를 1810년 10월 12일 개최한 것이 시초. 2010년 200주년 기념 옥토버페스트 개최.
 - 기간 : 매년 9월 하순~10월 초('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 장소 : 테레지엔비제 (Theresienwiese)
 - 웹사이트: <http://www.oktoberfest.de>
- 뷔르츠부르크 모차르트 축제
- 기간 : 2021. 5.28~6.27
 - 웹사이트 : www.mozartfest-wuerzburg.de
- 뮌헨 영화 축제 (Filmfest MÜNCHEN)
- 기간 : 2021. 7.1~7.10
 - 웹사이트 : <http://www.filmfest-muenchen.de>
- 바이로이트 바그너 오페라 축제
- 개요 : 바이로이트에서 1872~1883년 기간 살았던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공연
 - 주소 : Festspielhügel 2, 95445 Bayreuth
 - 기간 : 매년 7, 8월중 1개월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
 - 장소 : Bayreuth Festspielhaus
 - 웹사이트 : <http://www.bayreuther-festspiele.de>
- 안스바흐 바흐 축제
- 기간 : 2021. 7.30 ~ 8.8
 - 웹사이트 : www.bachwoche.de

X. 바이에른(뮌헨) 전통 음식

○ 바이스 부어스트(독일어 : Weißwurst, 영어 : white sausage)

뮌헨의 명물 바이스부르스트는 1857년 여관에서 처음 우연히 만들어져 유행한 음식. 다진 송아지고기와 돼지고기를 사용하여 만들어짐. 뮌헨 특유의 단 겨자와 브레첼(Bretzel) 그리고 바이스 비어(Weißbier)를 곁들여 먹음. 바이스부르스트는 신선함이 생명. 12시 이전에, 주로 아침식사로 먹는데, 때문에 이것을 오후에 먹거나, 맥주가 아닌 다른 음료를 곁들여 먹는 사람은 진정한 뮌헨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음. 바이스부르스트는 소시지의 배를 세로로 갈라 껍질을 벗긴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 먹는다.



○ 레버케제, Leberkäse

또 다른 뮌헨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레버케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베이컨 등을 갈아 빵 틀에 빵 모양으로 찍어낸 요리. 7~8유로선. 레버케제는 보통 감자 샐러드(Kartoffel Salat)를 곁들여 먹는다.



○ 슈바인스학쎄 (Schweinshaxe)

돼지 정강이 구이 요리. 보통 우리나라 김치와 비슷한 발효 음식인 자우어크라우트 (Sauerkraut)와 감자 경단인 카토펠크뇌델(Kartoffelknödel)과 곁들여 먹는다.



○ 바이스비어 (Weißbier)

바이스비어(Weißbier독일어) 또는 바이첸비어(Weizenbier)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 맥주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리 엿기름 대신 밀의 엿기름으로 바꾸어 만든 것이다. 원래 이름은 독일의 보통 맥주보다 밝은 색을 띠게 되어 흰 맥주라는 바이스비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지만 바이에른 밖에서는 바이첸비어(밀 맥주)라고 부른다



XI. 독일 방문 및 체류 시 참고사항

□ 입국절차

- 한국과 독일 간 비자 협정에 의해 3개월 이하 체류 시 비자가 불필요하며, 입국 시 출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음
- 입국 심사대는 EU 시민용 창구와 외국인 창구가 나뉘어져 있으며, 입국 심사대에 여권만 제시하고, 입국 심사관이 질문 시 이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됨
- 세관신고서 양식은 없으나 일정 기준의 세관 규정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신고 의무
 - *비 EU 개인 여행자의 항공 및 선박 여행 시 최대 430유로(만 15세 여행자의 경우 최대 175유로)
 - 수하물을 찾은 후 통과 시 일부 여행객의 수하물 검사를 시행하기도 함

□ 독일 호텔 예약 정보

www.booking.com 에서 호텔 예약 가능.

- 목적지 검색창에 뮌헨을 입력 (뮌헨에 위치한 호텔 315개 검색 가능).
- 한글 서비스

□ 독일 날씨 정보

www.wetter.de 에서 날씨 확인 가능

- 검색창에 도시 이름 또는 우편번호 (예 : 뮌헨 시내 중심 80331)를 입력한 후 검색(suchen) 버튼 클릭

□ 독일 시간 정보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8시간 느리나, 서머 타임(일광절약) 적용기간에는 한국보다 7시간 느림

- 서머타임 기간 확인:

<https://www.timeanddate.com/time/change/germany>

□ 대중교통 정보

○ 지하철(U-Bahn), 국철(S-Bahn), 전철(Tram) 및 버스

- 뮌헨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마다 운행 시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정시 출발 도착. 교통티켓 1장으로 지하철 (U-Bahn), 국철(SBahn), 전철(Tram) 및 버스 모두 환승, 이용 가능.
- 이동 구간과 이용 시간을 기초로 다양한 교통운임체계 운영.
- 대중교통의 구간은 크게 시내중심(Innenraum : Zone 1-4), 외곽 (Aussenraum : Zone 5-16), 전 구간(Gesamtnetz : Zone 1-16)으로 나뉘어져 있음.
구입한 티켓은 승차하기 전에 반드시 지하철 플랫폼과 버스/전철 내부 개찰기에 소인을 찍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검사원의 불시검문 시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60 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함.

※ 티켓 종류 & 요금 안내

- 편도 티켓 (Einzelfahrkarte) : 한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 왕복 금지
 - 어른 기준(시내) 3.40 유로
- 1일 티켓(Tageskarte) : 당일 하루 종일 ~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유효
 - 어른 기준(시내) 7.90 유로

자세한 티켓 관련 정보 및 이동 구간 검색 가능 사이트

☞ <https://www.mvv-muenchen.de/en/index.html>

○ 시티 투어 카드 (City Tour Card)

- 뮌헨 시내와 인근 외곽지역의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유적지나 박물관등에서 최고 50%까지 할인. 파트너 티켓은 최대 5명 까지 사용 가능. 자세한 요금 정보 및 구매 안내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www.mvg.de/tickets-tarife/muenchen-besucher/citytourcard.html>

○ 택시 이용

- 택시기사에게 행선지 거리명과 번지수만 알려주면 목적지까지 안내.
- 택시는 보통 택시 승강장에서 타거나 전화로 호출해야 하지만 거리에서 지나가는 택시도 이용 가능. 기본요금 : 4.70 유로
- 택시호출번호 : +49(0)89-21-610

☐ 전화사용

- 공중전화 이용 시 남은 동전이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 바람
- 공중 전화기를 이용해도 좋으나, 유심 칩과 선불(Pre-Paid) 카드를 구입해 한국 휴대폰에 장착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 이 경우 인터넷 데이터도 활용가능
- 선불카드는 인터넷이나 Deutsche Telekom 계열의 T-Mobile을 비롯하여, Vodafone, O2 등의 지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dm(드렉스토어)이나 Aldi(슈퍼), Lidl(슈퍼), Rewe(슈퍼)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 (단, 경우에 따라 현지 주소를 요청하므로 유의)
- 출장 또는 여행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 구입해 유럽 내 바로 개통 가능한 유럽 유심을 미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 여권 분실

-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후, 분실/도난 증명서를 받아야 함
-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이는 한 달간 유효
- 뮌헨에는 대사관 및 영사관이 소재하지 않으므로 베를린대사관 혹은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문의하여야 함
- 뮌헨 류승석 영사협력관 연락처 : +49 (0)179 3298 013
- ※ 필요 서류 : 진술서, 경찰서발부 분실 증명서, 사진 2매, 분실 여권번호와 발행일

☐ 항공권 분실

- 대부분 항공사에서 항공권 재발급이 가능 (항공권 복사본이 있으면 쉽게 재발급 처리)
- 분실 즉시 여권을 지참, 현지 해당 항공사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실 사유서 작성
- 시간이 없을 경우 새 티켓을 구입하고, 분실 티켓은 추후에 항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환불 가능
- 재발급할 때 약간의 재발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발급 소요시간은 항공사마다 상이함

XII. 독일/바이에른 주 기업 정보원

□ 주요 산업협회/조합/수입협회/상공회의소

사이트명	웹사이트	전화번호
독일 바이에른 주 수입도매업협회(LGAD)	http://www.lgad.de	+49 89 5459 37-0
뮌헨상공회의소	www.muenchen.ihk.de	+49 89 5116-0
뉘른베르크상공회의소	www.ihk-nuernberg.de	+49 911 1335-335
바이에른 주 클러스터	www.bayern-innovativ.de	+49 911 206 71-0
German Export Data (독일 경제인협회BDI 운영)	www.deutsche-exportdatenbank.de	+49 8261 999-0
독일기계플랜트산업협회 (VDMA)	www.vdma.de	+49 69 6603 0
독일경제인협회(BDI) 회원사	http://bdi.eu/der-bdi/mitglieder/	+49 30 2028 0
독일정보통신미디어산업 협회 (BITKOM)	www.bitkom.org	+49 30 275 760

Yellow Page, Compass 등

사이트명	웹사이트	비고
Kompass	de.kompass.com	
WLW (Wer Liefert Was)	www.wlw.de	기업정보 DB
바이에른주 기업 DB	https://firmen-in-bayern.de/sites/fitby/welcome.aspx (유료)	바이에른주 상공회의소 제공
Yellow Pages (Gelbe Seiten)	www.gelbeseiten.de	+49 69 2682-0

정부&주요기관 사이트

기관명	웹사이트	비고
바이에른 주정부	www.bayern.de	
바이에른주 투자유치청(Invest in Bavaria)	www.invest-in-bavaria.com	
독일 경제기술부 (BMWV)	www.bmwi.de	
독일 관세청	www.zoll.de	

전시회 관련 웹사이트 및 전화번호

기관명	웹사이트	전화번호
독일전시산업협회	www.auma.de	+49 30 240 000
독일 전시정보 DB m+a Internationale Messemedien	www.expodatabase.de	+49 69 7595 02
뮌헨전시장	www.messe-muenchen.de	+49 89 949-20720

□ B2B 포탈 (KOTRA운영 Buykorea와 유사)

구분	웹사이트	비고
포탈 IXPOS	www.ixpos.de	독일경제기술부(BMWI) 운영 B2B 포탈

XIII. 주요 연락처

○ KOTRA 뮌헨무역관

- 주소 : Tal 12, 80331 Munich
- 전화 : +49-(0)89-2424-2630
- 웹사이트 : www.kotra.or.kr/KBC/munich

○ 긴급 연락처

구분	전화
경찰	110
소방서/응급환자	112
환자수송 앰블런스	089-19222
당직근무병원	(0)89 3304 0302

○ 주독 대한민국 대사관

- 주소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tuelerstr. 10, 10787 Berlin
- 전화 (030) 260-650
- 팩스 (030) 2606-551
- URL <https://overseas.mofa.go.kr/de-ko/index.do>

○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 주소 Lyoner Str. 34, 60528 Frankfurt am Main
- 전화 (069) 9567-520
- 팩스 (069) 569-814/5600-3986
- URL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index.do>

○ 뮌헨 공항 (뮌헨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38km)

- 주소 Nordallee 25, 85356 München-Flughafen
- 전화 (089) 975 00 (일반 정보)
(089) 975 213 13 (이착륙 시간 안내)
- 팩스 (089) 975 579 06
- URL www.munich-airport.de

○ 한인회·한글학교·이미륵 한국문화공간

구분	전화	주소	비고
한인회	0176-8320-3421	Nettelbeck Str.28, 81929, Muenchen	김정수 회장
한글학교	-	Lindwurmstr. 90, 80337, Muenchen	박대림 교장
이미륵 한국문화공간	-	Leopoldstrasse 116, 80802, Muenchen	-

XIV. 뮌헨 무역관 오시는 길

☐ 공항에서 오시는 방법

○ S-Bahn 및 지하철 (U-Bahn) 이용 시

- 뮌헨공항 역에서 전철(S 1번 혹은 S 8번)을 타고 Marienplatz역에서 하차하셔서 Viktualienmarkt, Tal 또는 Sparkassenstr. 방향의 출구로 나오십시오.
- 구시청 Altes Rathaus/Old Town Hall (참고 : 광장 왼쪽의 검은색 석회석 건물이 신시청, 구시청은 출구에서 11시 방향 밝은 건물임)을 왼편에 끼고 그 길을 70~80미터 직진하여 내려오시면, 오른편에 한스 임 글뤽(Hans im Glueck)옆 파울라우너 (Paulaner im Tal) 건물 1층에 뮌헨무역관(Korea Business Center Munchen)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전철(S-Bahn)표는 **DB S MVV** 표시가 있는 안내 센터 또는 발권 기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요금은 짧은 구간용 편도티켓(독일어 : Einzelfahrt / 영어 : Single Ticket)을 자판기에서 구입 후, 개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데이 티켓(독일어 : Tageskarte / 영어 : Day Ticket)을 구입 하시면, 개찰 후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해당구간 안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시에는 정기권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공항버스 이용 시

- 공항 터미널 1 또는 2에 있는 공항버스 승강장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공항버스 (Lufthansa express bus)를 타고 중앙역(Munich Central Station영어 / Munchen Hauptbahnhof독일어) 까지 오신 후 전철(S-Bahn) 또는 택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금 성인기준 공항에서 중앙역까지 편도 11,00유로)

○ 택시 이용시

- 공항, 중앙역(Hauptbahnhof) 등 택시 승강장이 있는 경우는 바로 탑승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야 합니다. (Call Taxi 전화번호: 21610) 택시 탑승 후 해외무역관 주소를 택시운전사에게 제시하면 바로 해외무역관 앞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요금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60 유로, 중앙역에서 해외무역관까지는 약 10 유로선)

<약도 : 마리엔광장(Marienplatz)에서 무역관 찾아오시는 길>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